



Salesian Bulletin of Korea  
www.ibosco.net

# SALESIO 가족

2014/5 126호



**Cover Story** · 살레시오 가족의 아버지,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  
연중기획 · DA MIHI ANIMAS, CETERA TOLLE



# 제27차 총회를 통한 감동과 다짐

새로운 총장 신부님을 접하며,  
순교를 각오하며 사목하는  
살레시안의 체험담과  
베르실리오 성인에 관한  
얘길 들으며,  
벅찬 감동 속에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양승국 신부 살레시오회 관구장

사랑하는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로마 살레시오 본부에서 거행된 제27차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총회 중에 끝도 없이 반복되며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작년 봄 한국관구 관구회의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복음적 근본성의 증거자들’, ‘신비가’, ‘예언자’, ‘봉사자’, ‘사목적 회개’, ‘진심어린 형제적 교정’, ‘공동체성의 회복’, ‘청소년들에게로 돌아가기’, ‘살레시오 수사 성소의 소중함’, ‘평신도 동역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급격한 세속화와 노령화로 인한 형제 회원 수의 감소, 그로 인한 유럽관구들의 병합과 관구군의 조정,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몇몇 가슴 아픈 소송들...

그러나 마음 훈훈해지는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탐스러운 결실을 거두고 있는 아프리카의 살레시안들, 인도 관구군으로부터 불어오는 활기찬 새바람, 고목 같은 유럽에서 솟아오르는 새싹들, 활성화되고 있는 살레시오 가족의 재발견, 그리고 마

침내 하느님께서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들에게 보내 주신 천사 같은 아버지 양헬 페르난데스 총장 신부님.

## 선물로 오신 양헬 페르난데스 총장 신부님

가까이서 뵈는 신임 총장 신부님,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주신 것처럼 양헬 페르난데스 총장 신부님께서도 우리 살레시오 가족들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귀동냥으로 전해 들은 총장님의 인생도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양헬 신부님께서서는 축소 개편된 아르헨티나 관구로 건너가 남부 관구 관구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6개 관구에서 2개 관구로 축소 개편되는 스페인의 세비야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헬 총장님께서서는 또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27차 총회를 통해 제10대 돈 보스코 후계자로 선출되신 것입니다.

장상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예’ 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어디를 가든 형제 회원들을 먼저 생각하



며 그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분, 특유의 인자함과 원만함으로 돈 보스코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를 건설하셨던 분이기에 총회 멤버들은 두말 않고 성령의 뜻에 따라 그분을 총장님으로 선택했습니다.

## 중동관구 살레시안들의 현실을 듣고 뜨거워진 눈시울

총회 기간 중에 참으로 은혜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내고 저녁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 살레시오 회원으로부터 그들의 다양한 사목 체험들과 선배들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입니다.

중동 관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다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니르 엘 라이 <sup>Munir El Rai</sup> 신부가 저녁말씀을 했습니다. 화약고와 같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가 하나의 관구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94명의 살레시오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 난민수용소를 비롯한 정말 다양한, 그리고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카에다를 비롯한 급진적 회교도 무리들의 잔혹한 테러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상사국하에서도 살레시오회 형제들은 충실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형제들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 있고 싶어 합니다. 형제들은 진정으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니르 신부는 이 대목을 이야기하다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며 황급히 저녁말씀을 끝냈습니다. 대회의장에 앉아 저녁말씀을 듣고 있던 200여명의 형제들은 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총장 신부님은 저녁말씀을 끝낸 무니르 신부를 찾아가 깊이, 오랫동안 포옹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뚫듯한 저녁시간이었습니다.

## 성 베르실리아 주교님의 일화를 듣고 느낀 감동


중국 관구장 페데리고티 신부의 저녁말씀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실리아 주교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베르실리아 주교님은 이탈리아에서 수도회의 꽃인 수련자들을 교육시키는 수련장 신부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하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큰 스승으로서 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도 만만치 않았습다. 그러던 어느 날 돈 보스코의 후계자이자 2대 총장인 루아 신부님께서 베르실리아 신부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출중한 자질과 성덕을 파악하고 있었던 루아 총장님께서 뭔가 부탁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부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카오에, 홍콩에, 중국 본토에 수많은 가난한 청소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선교단을 좀 이끌고 가 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르실리아 신부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이라... 거의 지구 반대쪽 나라인데... 경제, 정치, 종교, 교육 등등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던데... 가만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던데... 사랑스러

운 수련자들은 어떡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또 어떡하지...

그러나 베르실리아 신부는 즉시 생각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즉시 접습니다. 환하고 기쁜 얼굴로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루아 총장님, 그럼 제가 언제 떠나면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제게 큰 위로가 되는 체험담들이었습니다. 형제들과 가난한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가족들의 선익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살레시오회 신임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신부.  
2015년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진 컵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4년 5월 126호

## Contents

- 02** 여는 글  
제27차 총회를 통한 감동과 다짐 양승국 신부
- 04** Cover Story  
살레시오 가족의 아버지,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 편집부
- 08** 살레시안 뉴스  
살레시오 가족 소식 편집자문위원
- 10** 연중 기획 · 돈 보스코의 영성④  
DA MIHI ANIMAS, CETERA TOLLE 편집부
- 16** 성모성월 기획  
살레시오 가족의 어머니요 스승,  
도움이신 마리아 편집부
- 20** 부모세대 vs 자녀세대  
“아르바이트!  
부모님 허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편집부
- 22** 청소년 복음화의 현장 · 수원 소화초등학교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야 해요!” 송정연 수녀
- 25** 청소년 문화 읽기  
불안한 청년 편집부
- 28** 독자편지  
독자들의 독후감 장을순 외
- 29** 퀴즈  
퀴즈 살레시오 및 후원자 명단 편집부
- 30** 생명을 주는 가족 ③③  
‘리더’라면 외부통제를 삼가자 박은미
- 32** 돈 보스코의 마음으로 교육합시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우리 최경숙 수녀
- 35** 닫는 글  
돈 보스코를 닮은 살레시오 가족 남상헌 신부

## 살레시오 가족의 아버지

#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

성령께서는 제27차 총회를 통해 새로운 총장 신부를  
살레시오 가족의 아버지로 선물하셨다.

향후 6년간(2014~2020) 살레시오회를 이끌어갈

총장 신부의 약력과 면면,

이어 부총장과 한국관구가 속한 동아시아-오세아니아 관구군 담당  
총평의원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부





**성령께서는** 제27차 총회를 통해 돈 보스코의 열 번째 후계자이자 새로운 총장님을 우리 모든 살레시오 가족에게 선물하셨다.

지난 3월 25일,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 잉태를 알리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또 다른 천사가 살레시오회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름하여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님. 앙헬<sup>Ángel</sup>은 천사를 뜻하는 스페인말이다.

## 스페인 출신 아르헨티나 관구장

아르티메 총장 신부님은 1960년 8월 21일 스페인 북쪽 아스투리에 지방 아름다운 해변 마을 고존<sup>Gozón</sup>에서 5대째 내려오는 한 어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올해 53세. 그는 1978년 9월 3일 살레시오 첫서원을 했고, 1987년 7월 4일 스페인 레온<sup>León</sup>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아빌라, 마드리드 등에서 공부를 계속하여 사목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레온 관구 관구평의원을 맡았으며, 1998년 부관구장에 그리고 2000년 관구장에 임명되었다.

2006년 관구장 임기를 마치고 오렌세<sup>Ourense</sup> 학교 공동체의 원장을 맡았다가, 2010년 1월 31일에 아르헨티나 남부관구장으로 임명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옮겼다.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다섯 개의 살레시오회 관구가 있었는데 이를 두 개의 관구, 즉 남부와 북부 관구로 통합하면서 그중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남부관구의 통치를 앙헬 신부에게 맡긴 것이다. 세 개의 관구가 하나로 통합된 아르헨티나 남부관구는 돈 보스코가 칼리에로를 첫 선교사로 파견한 파타고니아를 포함하고 있고, 복자 아르테미데 잿티 수사와 제페리노 나문쿠라, 그리고 복녀 라우라 비쿠냐를 배출한 곳이며, 돈 보스코의 여덟 번째 후계자인 고<sup>故</sup> 후안 에드문도 베기 신부 역시 그곳 출신이다.

훌륭한 성인들을 본받는 열성적인 삶과 많은 성소자들로 살레시오회가 한때 크게 융성했던 곳이지만, 포스트모던의 흐름에 따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성소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살레시오회의 감소 및 노령화를 겪고 있는 통합관구의 해결 과제는 산적해 있었다. 무엇

보다도 당시까지 서로 다른 관구에 소속했던 회원들 상호 간의 친화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고, 광활한 관할구역에 적절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앙헬 신부는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당면한 도전들에 맞게 비전을 제시하며 스스로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살레시오회원과 수많은 동역자 등 살레시오 가족 전체를 조화롭게 모으고 이끄는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하여, 불과 3년 만에 통합된 관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음은 물론이고 다른 관구로 선교사들을 파견하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 베르골리오 추기경과 협력

사목신학을 전공한 전문가답게 청소년 사목의 영역에서 지역교회에도 큰 기여를 했다. 관할구역 여러 교구의 청소년 사목을 위한 자문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시하여, 젊은이들이 다시 신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도움을 줬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이던 시절, 이런 앙헬 신부의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대교구장 베르골리오 추기경과 젊은 관구장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아르헨티나 신설관구의 통합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에게 이번에는 자기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의 해결사로 나서 달라는 요청이 도래했다. 스페인의 살레시오회 역시 회원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여섯 개이던 관구를 두 개로 줄여 통합하자






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중 남쪽 지중해에 면한 세 개 관구가 합쳐져 세비아에 관구관을 두게 될 도움이신 마리아 관구의 관구장으로 그가 또다시 차출된 것이다. 그는 예정대로라면 제27차 총회를 마치고 한 달 뒤인 5월 17일에 스페인 세비아 관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있었다.

## 돈 보스코의 열 번째 후계자

제27차 총회가 총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수행했던 식별과정에 따르면 향후 6년 동안 살레시오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들은 복음적 근본성을 증거하는 수도생활의 재정립과 청소년 사목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선출될 총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신앙 안에서 팀워크의 능력과 비전을 지닌 통치자로서의 아버지 상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앙헬 신부의 총장 피선은 더 이상의 안정맞춤이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신학 및 영성적으로 튼튼한 기초 위에 청소년 사목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춘 그, 스스로의 모범과 친화력으로 형제들의 일치와 협력을 이끌어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은 물론이고 발전을 이뤄내는 식별과 통치 능력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살레시오 가족을 위한 큰 선물이고 축복이다. 돈 보스코의 열 번째 후계자로서 오늘날 우리 살레시오 가족 모두가 창립자의 정신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늘 가난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리하여 변두리를 향해 나아가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초대에 합당하게 부응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할 책임자이다.

시대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 준비된 새 총장 신부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살레시오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나눈다. 

## 부총장 프란체스코 체레다 Francesco Cereda 신부



제27차 총회는 프란체스코 체레다 신부를 살레시오회 부총장으로 선출했다. 체레다 신부는 2002년부터 양성 담당 총평의원이었고, 27차 총회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1951년 3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 콜자노라는 곳에서 태어나 1968년 8월 16일에 살레시오 첫서원을 했고, 1980년 5월 24일 키아리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후 파르마 국립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며, 공동체 원장과

학교 교장 및 관구평의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 후, 1993년 밀라노 관구장으로 임명되었다. 1999년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UPS) 준관구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2002년 25차 총회에서 양성 담당 총평의원에 선출되었고, 2008년 26차 총회에서 재선되었다. 26차 총회에서도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체레다 신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을 지닌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오랜 기간 다양한 현장에서 살레시오회원들의 양성을 담당했던 경력이 말해 주듯이 수도자 삶의 모범이다. 12년의 양성 담당 총평의원을 맡은 동안 토리노, 예루살렘, 마닐라, 에콰도르 키토 그리고 아프리카의 루뭇바시 등 대륙별 양성 센터를 설립하거나 강화했다.



**총장과 총평의원들**, 앞줄 왼쪽부터 **1** 총경리 장 폴 물러 수사, **2** 청소년사목 담당 파비오 아타르드 신부(이하 모두 신부), **3** 부총장 프란체스코 체레다, **4**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5** 양성 담당 아이보 코엘로 니콜라스, **6** 사회커뮤니케이션 담당 필리베르토 곤잘레스, **7** 선교 담당 궤레모 바사네스  
 뒷줄 왼쪽부터 **1** 북중유럽 관구군 담당 타데우즈 로즈무스, **2** 동아시아-오세아니아(EAO) 관구군 담당 현명한(Václav Klement), **3**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관구군 담당 아메리코 하울 사키시, **4** 지중해 관구군 담당 스테파노 마르톨리오, **5** 남미원추 관구군 담당 나탈레 비탈리, **6** 남아시아 관구군 담당 마리아 아로키암 카나가, **7** 남북미간 관구군 담당 팀 플락, **8** 총비서 마리안 스템펠

## 동아시아-오세아니아(EAO) 관구군 담당 총평의원 현명한(Václav Klement) 신부



선교 담당 총평의원  
 이었던 현명한 신부가  
 EAO 담당 총평의원으로  
 선출되어 우리 동아  
 시아 관구군으로 돌아  
 왔다.

1958년 10월 7일 체  
 코 브르노에서 출생하  
 여 1982년 9월 4일 살

레시오 첫서원을 했으나, 당시 공산당 치하였기에 부  
 모에게까지도 수도자 신분을 감춰야 했다. 교구 신  
 학교에 다니며 신학을 공부하다가 1984년 이탈리아  
 로 탈출하여 UPS에서 신학과 사회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1986년 5월 25일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고  
 바로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했다.

1995년 대림동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된 후 1년  
 만인 1996년 한국 준관구장으로 임명되었다. 1999년  
 한국이 관구로 승격되면서 초대 관구장이 되었고,  
 2002년 제25차 총회에서 종전 아시아 관구군이 남아  
 시아(인도, 스리랑가, 미얀마)와 동아시아-오세아니  
 아(EAO)로 분리되면서 EAO 관구군 담당 초대 총평  
 의원에 선출됐다.

그리고 6년 후 제26차 총회에서 선교 담당 총평의  
 원에 선출되어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찾아다니며 선  
 교사들을 돕는 활동을 했고, 이번 제27차 총회에서 다  
 시 EAO 관구군 담당 총평의원에 선출되었다. 🇰🇷🇪🇦🇴





## 살레시오수녀회, 도림동본당 사목

2월 23일, 살레시오수녀회는 두 명의 수녀(노영순, 장종수)를 도림동성당에 파견하였다.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돈보스코유치원이 함께 있는 이 성당은, 일찍이 1957년 살레시오수녀회가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처음 사목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의미가 남다르다. 성 요한 보스코가 주보인 도림동본당에 살레시오 수녀회 파견을 기점으로 돈 보스코 영성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종신서원, 첫서원

광주관구 : 2월 7일, 임암동 관구 본원에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김영규 수녀가 종신서원을 했다. 수원관구 : 2월 8일, 인계동성당에서 살레시오회 관구장 남상현 신부 주례로 안효영 수녀가 첫서원을 했다.

## 살레시오수녀회 대구가톨릭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도

2월 25~27일, 3200여 명의 대구가톨릭대학 신입생을 만나는 오리엔테이션(HCC)에 25명의 자매들이 파견되어 살레시오의 카리스마를 한껏 발휘했다. 3월 7일에는 이 대학 총장(홍철)이 살레시오수녀회에 특별공로 포상으로 그 수고에 답했다. 이어 3월 14일부터 150명 단위로 1박 2일씩 인성교육(1학점/총 20회)을 대구가톨릭대학 경주 수련원에서 실시했다.



## 살레시오수녀회 입회자

2월 22일, 일곱 명의 자매(곽낙용, 박효진, 유초롱, 윤여진, 이달남, 이혜민, 황금빛)가 살레시오수녀회의 새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두 선배 자매(김소영, 이애나)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하면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

## 살레시오협력자회 사순 피정

살레시오협력자회 사순 피정이 3월 9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7층 성당에서 '협력자 성소와 돈 보스코 영성'이라는 주제로 있었다. 살레시오회 김건중 신부가 2014년 생활지표에 관해, 살레시오수녀회 장성에 수녀가 돈 보스코의 영성을 산 마리아 마자렐로에 관해 각각 강의했다. 강의 후엔 조를 나눠 십자가의길 각 처를 몸으로 표현하며 기도문을 봉헌했다.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입회식

3월 1일, 광주관구에 한 명(김근희), 서울관구에 다섯 명(박은현, 최명숙, 김주희, 한정원, 김현실), 수원관구에 두 명(김명희, 배정민)의 자매들이 지원자로 입회하였다. 여덟 자매가 자신이 받은 성소를 하느님과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당부드린다. 이들은 현재 서울관구 양성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 살레시오회 김형식 신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견되

김형식 신부가 아프리카 잠비아 관구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3월 9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7층 성당에서 선교위원장 홍부희 신부 주례로 파견 미사가 있었고, 김 신부는 이튿날 잠비아로 떠났다. 현재 그는 잠비아 관구관에서 현지 적응을 하며 영어 수업을 받고 있다.



### 살레시오회, 말라위에 평신도 선교사 파견 및 선교 협약

3월 17일, 살레시오회 관구관에서 평신도 진형근(62)·이명혜(59) 부부의 평신도 선교사 파견식이 있었다. 지난 8년 동안 말라위에서 평신도로서 농업 선교활동 펼쳐 왔던 이들 부부는, 금년부터 살레시오회 선교사로서 농업 선교를 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2일엔 관구관에서 살레시오회와 (주)자미온하우스(대표이사 황경숙) 사이에 선교 협약식이 있었다. (주)자미온하우스는 살레시오회가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농업 기술을 통한 지역민 자활 사업'을 펼치는 데 향후 15년 동안 100만 달러를 후원할 예정이다.

### 살레시오회 장동현 신부, 선교 활동 기금 마련 마라톤 대회 참가

3월 16일에 열린 '2014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살레시오 선교국장 장동현 신부가 참가해 완주했다. 캄보디아 포이땃 돈보스코청소년센터 운영비 마련 명목으로 대회에 참가한 장 신부는 1미터당 1원의 후원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5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기금을 마련했다. 이는 5만Km에 해당하는 후원으로 그 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넉넉히 남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나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아폴리나리스 총원장 수녀, 세 관구 공식방문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의 총원장 아폴리나리스 수녀와 부총장 스텔라 수녀가 3월 19일, 한국의 세 관구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입국했다. 총원장 수녀는 각 수도원을 방문하고 관구별 모임을 통해 모든 회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총원장 수녀의 공식방문은 수원관구를 시작으로 서울관구, 광주관구 순으로 7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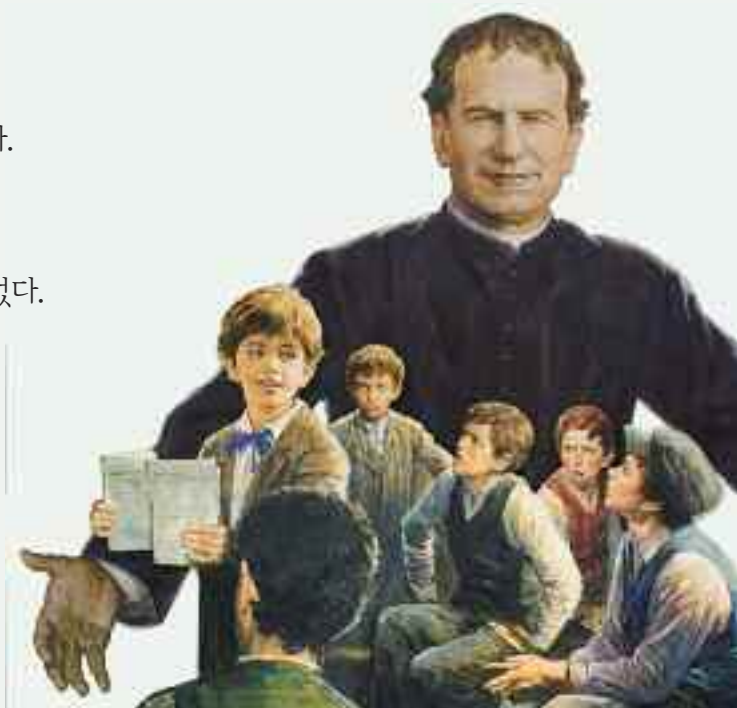
돈 보스코의 영성 ④

# DA MIHI ANIMAS, CETERA TOLLE

오 주님, 제게 영혼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은 거둬 가십시오

편집부

“1854년 10월 어느 날, 도미니코 사비오가  
오라토리오에 처음 도착하여 내 방에 인사하러 왔다.  
아이의 시선은 즉시 벽에 붙은 한 액자에 꽂혔다.  
그곳에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Da mihi animas, cetera tolle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를 천천히 읽고 있는 아이에게  
그 뜻을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래서 쉽게 번역하여 뜻을 일러 줬다.  
‘오 주님, 제게 영혼을 주시고  
다른 모든 것은 거둬 가십시오.’  
아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이곳은 돈을 벌어들이는 가게가 아니라  
영혼을 벌어들이는 곳이군요.  
알겠어요. 제 영혼도 이 거래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보스코가 1859년에 쓴 「도미니코 사비오 전기」에 등장하는 일화다. 사비오는 ‘영혼’을 개인의 영적인 요소로 재빠르게 이해하며, 무엇보다 값진 부분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원해야 할 것임을 알아차리는 영민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돈 보스코가 모토로 선택한, 그리고 같은 1859년에 창립된 살레시오회의 모토로 확정된 “Da mihi animas, cetera tolle”는 돈 보스코의 사도적 열정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말이다.

## 성서적 기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제안

돈 보스코 모토의 성서적 기원을 알고 싶어하는 살레시오 가족들은, 이 말이 창세기 14장 21절에서 아브람이 아니라 소돔 임금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적잖이 실망을 하곤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 임금의 말을 수도회의 모토로 삼다니!

창세기 14장은 아브람 생애에서 가장 호기심을 발동케 하는 부분이다. 이 신앙의 성조가 당시대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일순에 무너뜨리는 능력자로 등장하면서, 어떻게 전쟁에 관여하고 그 주인공이 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강력한 네 왕이 연합하여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장면을 서술한 다음, 다섯 임금의 동맹은 패전하여 전쟁의 참혹한 결과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이야기한다. “적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 버렸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 재물도 가지고 가 버렸다.”(14,11-12) 이때 히브리인 아브람이 개입하여 적들을 물리친다.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오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함께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데려왔다.”(14,16) 승전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살렘 임금 벨키체덱이 아브람을 축복하였고, 소돔 임금은 아브람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14,21) 하고 말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돈 보스코의 모토가 성경에 언급되는 구절이다. 예로니모 성인이 히브리말에서 직접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 “Da mihi animas, cetera tolle”라고 표현되는 부분이다.

라틴어에서 animas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본에서 nephesh(נֶפֶשׁ)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755번 등장하며, 각각 경우에 맞춰 영혼 · 사람 · 존재 · 자신 · 마음 · 심장 · 의지 등으로 영어본 성경에 번역되고 있다고 한다.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제안하는 것은 소돔에 속한 ‘사람들’을 돌려 달라는 요청임을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도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말 번역본인 70인 역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말은 가져가시오.”라고 표현한다. Nephesh는 ‘사람들(tous andras)’로 번역되면서 재물에 해당하는 rekush(רֶקוּשׁ)는 네 발 달린 짐승, 특히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을 따른 고전 라틴성경(Vetus latina)에서도 같이 표현하고 있다(Da mihi homines, equos autem sume tibi).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아브람의 영광이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요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이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의 용맹스러운 개입 덕분에 평화와 재물을 되찾은 주변 임금들은 그를 인정하고 높이 칭송한다. 특히 소돔 임금의 제안에 대해 아브람은 관대하고 초연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높은 도덕적 차원을 한껏 뽐내고 있다. 매력적인 제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브람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소돔 임금이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임을 밝힌다. 아브람의 철석같은 신앙에 방점을 두는 구절들이 되겠다.

## 교부들의 해석

성 크리소스토모(349~407)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임금의 자세는 바람직하다. 그는 관대하게 선물을 내놓았다.”라고 그가 보인 태도를 비난할 수 없음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리품을 제안하는 임금의 자세는 오로지 그것을 거절하는 아브람의 높은 덕의 모범을 칭송하는 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값지다고 평가되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모범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암브로시오 성인(339~397)은 팔레스티나의 네 왕에 맞서는 다섯 임금의 전쟁을 인간 열망에 대한 영성적 투쟁으로 설명한다. “승리를 거둔 아브람이 소돔 임금으로부터 악의 권유를 받는 것처럼, 욕망을 이긴 후 합리적인 정신 속으로 쾌락을 탐구하는 것이 파고들며 비합리적인 열정으로 퍼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네 왕을 이긴 다섯 임금은 육체적인 오감을 사로잡는 영혼의 욕망이라고 설명한다. 즉 소돔 임금의



# DA MIHI ANIMAS CETERA TOLLE

제안은 의심스러운 흥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람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신앙을 통해 승리한 복음적인 사람으로 해석했다. 소돔 임금의 제안은 매혹적인 것이지만 신앙이 아브람에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형태의 인간적 혜택을 포기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이 구절을 악마의 유혹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편 40장 15절 “제 목숨을 잡아채려 노리는 자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를 인용하며 원수들은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들여 하는 이들이라고 천명한다.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제안하는 소돔 임금은 영혼을 잃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원수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Da mihi animas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이 전통적인 교부들의 입장이다. 12세기 레망스의 주교 힐데베르트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악마들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였다. 또한 오르테리코 비탈레는 자신의 책「교회사」에서 소돔 임금은 악마를 대변하며, 유혹자로서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미끼로 유일한 목적인 영혼들을 질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브람을 만난다고 하였다.

## 사목자의 기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1567~1622)에 이르러 이 문장의 해석에 완전한 반전이 이뤄진다. 사실 살레시오 성인이 남긴 27권의 책들과 많은 기록 중에 어디에도 이 ‘Da mihi animas, cetera tolle’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장

피에르 카뮈 주교가 남긴 책 「복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정신」(L'esprit du bienheureux François de Sales)에서 살레시오 성인이 이 구절을 자주 언급하며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의 전 생애가 가톨릭과 칼뱅교도들 사이의 극심한 투쟁 사이에 걸쳐 있다. 그는 1602년 제네바의 주교로 임명되었으나 자신의 주교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시에 머물러야 했다. 그의 아버지는 제네바 적들을 대포로 무찔러야 한다고 권했으며, 사보이아 백작이 지닌 공권력과 군사력이면 능히 이를 실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살레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혼들의 재탈환이었다. 그렇기에 1535년에 칼뱅교도들에게 함락된 자신의 도시가 그들의 아버지들이 믿었던 종교의 품에 자발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데는 무력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의 방식으로만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접근했다.

카뮈 주교에 따르면 그의 목표는 오로지 사목적인 것이었다. “거역하는 영혼들을 참된 교회 안에서만 밝게 빛나는 진실의 빛으로 회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숨조차 쉬지 않았다. 제네바에 대해 말할 때면 한숨을 쉬며 자주 ‘Da mihi animas, cetera tolle tibi’를 되뇌었다.”

앞에서 보았던 Da mihi animas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이 악마적인 입장에서 영혼을 탐하는 것이었다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에게는 이 문장이 선교적이고 사목적인 기도로 변모된다. 이 기도는 하느님을 향해 영혼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고, 모든 형태의 군사적인 정복이나 물질적인 보상 또는 개인적인 관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카뮈는 아브람이나 소돔 임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기록하지 않았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며, 이 구절을 제네바 주교의 사도적 열정과 애절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맞춰 언급할 뿐이다.

카뮈 신부가 쓴 책 「복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정신」 이후, 창세기 구절에 대한 영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표현은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변하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같은 방식으로 즐겨 사용된다. 특히 성 빈첸시오 드 폴(1581~1660)은 영웅적인 사랑과 사도적 열정으로 자신이 수도자들을 멀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선교사로 파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영혼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는가. Da mihi animas, cetera tolle.”

이처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후 많은 사목자들, 특히 사보이아와 피에몬테의 사목자들이 원래 창세기의 구절이나 전통적인 교부들의 해설을 인용하지 않은 채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또는 사도적 열성의 표현으로 흔히들 이 문구를 사용했다. 이런 반전에 대해 너무 의아해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성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6)라고 했다.

## 돈 보스코의 기도

돈 보스코가 자기 모토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는 글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이것에 대해 다양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여러 번 말했던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도미니코 사비오가 돈 보스코의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의 상황이라든지, 소년의 전기 중에 ‘열성’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자기 모토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도적인 열성이 도미니코 사비오의 열정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도미니코는 스승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 영혼을 벌어드리려”, “영혼의 선익을 위해 협력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영혼의 선익을 위해 수고하는”, “영혼을 돕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도미니코는 “우리는 서로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인 그가 영혼을 벌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친구들의 욕지거리나 불경스러운 말에 대해 결연하게 맞서는 것이라든지, 선교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을 드러냄, 교리교육을 펼치려는



“너희들을 위해 공부하고, 너희들을 위해 일하며, 너희들을 위해 나의 삶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의지, 친구들을 기도하도록 돕거나 기도로 인도하는 것 등이 소년의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었던 영혼 구원의 활동들이었다.

1863년 12월 31일, 새로운 해를 위해 돈 보스코가 오라토리오의 아이들에게 생활지표(스트렌나)를 주면서 “우리 집의 가훈은 내 방에 붙어 있는 ‘Da mihi animas, cetera tolle’이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만을 원하고, 너희들의 영적인 이익만을 바란다. 나와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을 위해 공부하고, 너희들을 위해 일하며, 너희들을 위해 나의 삶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돈 보스코 전기 7권, 585).

1868년 출판한 「가톨릭 기도서」에서는 영혼의 구원이 하느님의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 형제, 내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제게 허락 하소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마리아의 눈물을 주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신 당신 성자의 눈물을 그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권하며, 카인처럼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변명하며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1880년 7월 1일, 살레시오협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돈 보스코는 “여러분은 성 프란치스코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느님께 영

혼을 벌어드리기 위해 모든 이에 게 모든 것이 되었으며, 자주 ‘영혼은 제게 주시고 그 외는 모두 가져가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돈 보스코 전기 14권, 547)라고 말했다.

돈 보스코에게 있어 이 모토는 분명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이런 사정은 1880년에 출판한 그의 책 「좋은 사람」에 기록된 “나의 기도는 ‘영혼을 제게 주시고 모든 것을 거둬가십시오.’이다.”라고 기록한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1884년, 살레시오회의 문장(紋章)을 확정하는 데 모토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는 복음의 말씀이 초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수도회에서 모토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른 제안으로는 ‘일과 절제’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빌어 주소서’ 등이 제안되었다. 이때 돈 보스코가 개입하여 문제를 정리했다. “내가 처음 소년원을 방문하던 시절인 오라토리오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모토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Da mihi animas, cetera tolle’입니다.” 총회는 돈 보스코의 말씀에 환호하며 이 모토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돈 보스코 전기 17권, 366).

### 모토가 담고 있는 물아의 정신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포로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아브람에게 속하듯이 영혼들은 구속사업으로 인해 주님께 속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영성적인 입장에서는 앞 부분(da mihi animas)이 영혼들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뒷부분은 물아(沒我, 즉 전통적으로 세 가지 것(쾌락, 부, 명예)에 대한 포기)의 행위를 드러낸다.

돈 보스코는 「교회사」에서 샤블레에서 펼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큰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소리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온유함과 사랑으로만 무장한 채 샤블레를 향해 출발했다. 무너진 교회들, 폐허가 된 수도원들,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같은 것들이 그의 열성에 불을 지폈고 사도직을 시작하게 했다. 그는 인내로, 강론으로, 저술로,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기적들로 살인자들을 설복시켰고 지옥에 속한 것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리하여 샤블레에서만 7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른 교회로 되돌아오게 해 교회에 큰 승리를 안겨 주었다.”

돈 보스코에게 영혼의 선익을 위한 노력과 하느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노력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으로 여겨졌다. 돈 보스코가 Da mihi animas를 말할 때 이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성 빈첸시오 드 폴의 모범을 따르며 그 사도적 열성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다. 열정에 사로잡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하느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열성으로 막아냈고, 미처 이를 방어하지 못해서 받은 상처는 정성을 다해 치유하고 원상으로 돌리려 노력했다. 죄를 무너뜨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살피며 이웃을 성화시키는 것은 빈첸시오 드 폴의 유일한 목표였다. 이렇듯 그들의 열정은 항상 지혜로워 복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고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마치 초원의 맹수가 먹이를 쫓듯이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해 내달렸다.

### 돈 보스코에게 돌아감

돈 보스코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 문장이 지닌 성서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떤 기록에도 소돔 임금이 아브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맥락으로 사용한 주해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성서적 주해의 정확한 이해를 지녔으면서도,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로부터 출발하는 영성적 접근을 취하고 사목적 열정을 드러

DA MIHI ANIMAS, CETERA TOLLE



# DA MIHI ANIMAS, CETERA TOLLE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서 Da mihi animas, cetera tolle는 더 이상 원래 사용되었던 맥락, 즉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요청하는 장면에 예속되거나 그에 맞춰 이해되도록 이끌리지 않는다. 오히려 사목자가 영혼-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문구가 된다. 원래 ‘사람’을 의미하던 animas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사도적 열정의 대상이 지닌 총체적 현실, 즉 anime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원되어야 할 보다 소중하고도 항구한 구성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모토가 지닌 목적은 분명하다. 영혼의 구원이다. 스스로의 영혼은 물론이고 이웃의 영혼, 특히 사회로부터 온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나에게 영혼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

## 젊은이에게 돌아감

이 기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형태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것처럼 살레시오 가족인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젊은이들에게 선물이 될 결심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진단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 “청소년들은 자주 그들의 관심, 요구, 기존 질서가 지닌 문제와 폐해에 대한 좋은 해답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어른들인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인내롭게 듣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에 대해 존중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복음의 기쁨, 105항)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또는 가까이 있는 청소년의 관심과 요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적절한

응답을 제시할 수 있겠는지,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이런 살레시오 가족이 지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는 자기소멸 및 하느님과 통합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초연해질 것을 촉구한다. 도움이 절박한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함께 살고, 또는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단순한 삶에 익숙해 있기를 요구하는 단호함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 투신하는 이는 동시에 개인적인 쾌락이나 명예 및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 결눈질하지 않는 사람이다. Da mihi animas, cetera tolle가 Da mihi animas, **cetera cetera**(나에게 영혼도 주시고 기타 등등도 주십시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함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정서적·문화적·영적 빈곤으로 인해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온갖 부류의 가난함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온전히 투신할 것을 요구한다.

돈 보스코의 마니피캇인 “너희들을 위해 공부하고, 너희들을 위해 일하며, 너희들을 위해 나의 삶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 Da mihi animas, cetera tolle를 사는 것이다. 🍎🍌🍌



# 살레시오 가족의 어머니요 스승, 도움이신 마리아

돈 보스코의 성소 여정과 청소년 구원 사업에 늘 함께하며 도움을 주신 성모님, 도움이신 마리아!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을 앞둔 지금, 돈 보스코를 본받아 도움이신 마리아의 현존을 굳게 믿으며  
청소년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편집부



##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1887년 5월 15일 로마 예수성심성당 축성식 다음 날, 돈 보스코(성 요한 보스코: 1815~1888)는 이 성당의 도움이신 마리아 제대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러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미사 집전을 수시로 중단해야만 했다. 예수성심성당은 1880년, 노년의 돈 보스코가 레오 13세 교황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세운 기념비적인 성당이다.

미사가 끝난 후 비서인 빌리엠티 신부가 “돈 보스코,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세요?”라고 묻자 돈 보스코는 “내 눈 앞에 아홉 살 때 처음 꿔던 꿈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정말로 보였어요...” 그 오랜된 꿈속에서 성모님은 소년 요한에게 말했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그 꿈속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아이들을 주먹다짐으로 막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온유와 사랑으로 이들을 네 친구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스승으로 성모님을 소개해 주셨다. 이어지는 장면을 돈 보스코는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 부인(성모님)은 내 손을 다정스럽게 잡아 주시고는 ‘앞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보니 소년들은 사라지고 그 대신 염소, 개, 고양이, 곰 등 다른 많은 동물들이 나타났다. 그분은 ‘여기가 너의 일터며 네가 일해야 할 곳이다. 겁



손하고 강인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어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는 장차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사나운 짐승들이 어느새 순한 양으로 변해 즐겁게 뛰어다녔다.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자, 그 부인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꿈으로부터 63년의 세월이 흐른 말년의 돈 보스코, 마지막 열정을 다 쏟아부은 예수성심성당을 완성하고 드리는 첫미사에서 성모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의 도례를 본 것이다. 가난한 아이들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려 노력한 자신의 전 생애는 모두가 성모님의 인도를 받은 그 꿈의 실현이었음을 깨우쳤다. 자신을 평생토록 이끌고 동반하며 도움을 주신 성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감동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솟은 것이다.

모든 성인성녀에겐 하나같이 성모님을 향한 깊은 신심이 있다. 돈 보스코의 성모님 공경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다. 아홉 살 꿈에서부터 선종 때까지 한평생 성모님께서 늘 자신의 성소 여정에 함께하시면서 청소년 구원사업에 도움을 주고 계심을 늘 자각하고 있었다. 돈 보스코는 이 성모님을 ‘도움이신 마리아(Maria ausiliatrice)’로 칭하며 자신의 성모님으로, 살레시오 가족과 모든 아이들의 성모님으로 모셨다.

## 도움이신 마리아, 교회의 보호자

1571년 10월 7일, 신성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군은 오스만 터키의 이슬람군과 벌인 레판토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다. 당시 비오 5세 교황은 성모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승리가 가능했다고 믿었으며, 해전에 참가한 병사들이 드렸던 청원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이시어,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Auxi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성모호칭기도에 첨가시켰다.

이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 재위 때인 1683년 이슬람군이 막강한 병력으로 비엔나를 포위 공격하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던 그리스도교군은 요한 소비에스키 장군의 지휘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이슬람군에 대항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신 마리아께 청원을 드리며 구원을 호소했었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감사와 그 신심이 널리 퍼져 나갔다.

1809년 7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교황 비오 7세를 감옥에 가두고 5년 동안 감금하였다. 감옥에서 매일 마리아께 기도와 탄원을 드리던 교황은 마침내 1814년 5월 24일 풀려났다. 교황은 자신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도움이신 마리아의 은총이라 여겨 이듬해, 돈 보스코가 태어난 1815년에 자신이 풀려난 날을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로 정하여 발표했다.

한편 이탈리아 통일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 교회와 자유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1862년, 스폴렛토라는 곳의 한 무너진 성당에 아기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 벽화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성모님이 엔리코라는 꼬마에게 몇 차례 발현하였고, 여러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졌다. 구름처럼 몰려드는 순례객들은 이 벽화의 성모님을 도움이신 마리아라고 불렀다.

적들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는 위기 때마다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는 믿음이 싹텄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교황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돈 보스코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자비로운 손길이 절박하다고 생각했고, 스폴렛토의 발현을 계기로 마리아의 개입에



대한 기대감을 널리 퍼뜨리고자 했다.

## 도움이신 마리아, 돈 보스코의 성모님

이렇게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의 기수가 된 돈 보스코는 토리노의 발독코 오라토리오 옆의 넓은 부지에 도움이신 마리아께 봉헌할 성당을 짓기로 결심한다. 이터는 성모님께서 돈 보스코의 꿈에 나타나 로마시대 세명의 거룩한 병사가 순교한 자리라고 가르쳐 준 곳이다.

1863년 가을 기초 공사인 터파기 첫 삽을 뜰 때 돈 보스코는 건축가 카를로 부젯티에게 건축비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 주었는데, 겨우 40센트가 전부였다. 대공사가 섭리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 상징적인 행위였다. 돈 보스코는 성모님께 봉헌하기 위해 그분께 의탁하며 시작한 이 공사를 성모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임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어머머마한 경비와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대공사가 성공리에 끝나고 축성식을 한 날은 1869년 6월 9일이었다. 돈 보스코는 이 성당을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이라 이름 붙이고, 도움이신 마리아께 봉헌하였다. 교황 비오 9세는 돈 보스코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악의 세력이 가톨릭교회를 거슬러 맹렬하게 도발하고 있는 이때, 천상의 수호자이신 성모님께서 도움이신 마리아라는 칭호로 새롭게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말했다.

온 정성을 다해 지은 이 성당은 예술적으로도 뛰어난데 그중에서도 돈 보스코의 구상에 따라 화가 톰마소 로렌조네(Tommaso Lorenzone)가 그린, 중앙 제단 위에 모셔진 성화는 성당 내부의 여타 작품들을 압도한



다. 이 성화는 4×7m의 크기로 외곽을 금박으로 둘러 우아하게 처리했다. 중앙의 도움이신 마리아는 하느님 아버지, 성령, 천사, 사도들과 복음사기들로 둘러싸여 있다.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은 살레시오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돈 보스코의 신앙과 용기에 의해 그 성당이 세워지고 난 후 살레시오회는 교회법상의 교황청립 수도회로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돈 보스코의 청소년의 위한 사도직이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갔다. 그렇기에 돈 보스코는 살레시오회가 진출한 어느 나라든 꼭 그곳에 성전을 지어 도움이신 마리아께 봉헌하라고 당부했다.

## 도움이신 마리아, 살아 계신 성모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돈 보스코는 1869년 ‘도움이신 마리아회’<sup>ADMA: Associazione di Maria Ausiliatrice</sup>라는 평신도 신심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현재 토리노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8만 명의 회원이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고 있다.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돈 보스코 신심의 절정은 그분께 살아 있는 기념비를 만들어 드린 것에 있다. 1864년부터 모르네세의 동정녀 그룹인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회를 알게 된 돈 보스코는 이들을 통해 가난한 소녀들을 보살피는 수녀회를 세웠다. 그러면서 성모님께 드리는 살아 있는 기념비라 하여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sup>FMA: Figlie di Maria Ausiliatrice</sup>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살레시오수녀회다.

돈 보스코는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늘 가까이 계심

을 강조했다. 1885년 6월에 있었던 일화는 돈 보스코가 얼마나 '성모님의 현존'을 굳게 믿었는지 잘 알게 해 준다.

살레시오수녀회 총회가 이탈리아의 낫자 몬페라토에서 열리고 있었다. 매우 쇠약해진 노년의 돈 보스코가 총회 마무리 말씀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돈 보스코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늙었고 말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십니까? 성모님께서는 여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돈 보스코를 수행하며 곁에 있던 보네티 신부(살레시오가족지 초대 편집장)가 총회 참석자들에게 돈 보스코의 말씀을 받아 큰 소리로 전했다. “돈 보스코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니시고 여러분을 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돈 보스코는 고개를 저으며 안간힘을 다해 그의 말을 수정했다. “성모님께서 이 집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보네티 신부는 계속 엉뚱하게 말을 전했다. 이에 화가 난 돈 보스코가 있는 힘을 다해 크게 외쳤다.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바로 여기,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이 집안을 거닐고 계시며, 당신의 망토로 이곳을 덮고 계십니다!”


### 도움이신 마리아, 살레시오 가족의 어머니

교회가 거둔 모든 승리의 밑바탕에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힘이 있었음을 확신한 돈 보스코, 교회 사명의 궁극적인 성취와 특히 살레시오 사명의 성취를 보증해 주시는 도움이신 마리아에 대한 돈 보스코의 믿음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 그가 삶으로 보여 주고 가르쳤듯이 도움이신 마리아는 실제로 오늘도 우리 곁에 현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반하시는 어머니시다.

“거듭 당부합니다. 도움이신 마리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다가가십시오.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살레시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

들을 구원하시려는지 안다면…….” 돈 보스코께서 살레시오 가족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을 되새기자.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을 눈앞에 둔 이때,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의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도움이신 마리아님의 은총을 구하자.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열고 변두리를 찾아나서는 길을 성모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하자.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도움이신 마리아께 의탁하는 기도

지금히 거룩하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요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창립자이시고 지주이신 어머니.  
살레시오 성소에 충실하도록  
저희를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오며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어머니께서 저희 기도를 전구해 주시리라 믿고  
살레시오회와 살레시오 가족과 청소년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돈 보스코의 스승이 되신 어머니  
저희로 하여금 그의 여러 덕행들  
특히 하느님과 일치, 겸손, 정결하고 가난한 생활  
일과 절제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선을 베푸는 마음  
그리고 교황님과 교회의 목자들에게 대한 충실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간구하오니 죽을 때까지 성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아르바이트! 부모님 허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에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부모의 간섭이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아이들.

이 같은 갈등... 그 현상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짚어 본다. 편집부

자녀

부모 동의서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방학 중에 알바(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용돈 좀 벌어야겠다고 맘 먹고 알아봤더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집에서도 가깝고 주말에만 하는 거라 학업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지원했더니 부모 동의서를 얻어 오래요. 당연히 말안했죠! 엄마한테 용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 면박부터 주는데, 알바까지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라는 공부 안하고 쓸데 없는 짓 한다”고 할 거 뻔한데. 저도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다고요! 맨날 얻어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짜나요 진짜.

도대체 부모 동의서는 왜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이은정(고등학생)

부모

어떻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알바를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해 와서 웬만한 일은 아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쳤어요.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큰 말썽 없이 자라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며, 성적도 중간 이상이라 감사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저녁에 어딘가를 다녀오는 눈치더라고요. 뭘하고 다니는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들과 만나서 놀았대요. 워낙 친구들을 좋아하는 녀석이라 처음엔 그런가 보다고 여겼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닌가 슬슬 걱정이 되어서 캐물었더니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저한테 말도 안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해 왔던 거예요. 기가 막혀서 크게 혼을 냈더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되려 따지고 들더라고요. 스스로 용돈 벌이를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요. 알바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다는 게 정말 패썹하네요.

최정화(학부모)





## 아르바이트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소년이 어느 날 배달을 가 보니 자기집이더군요. 배달은 해야 되는데 들켜서는 안 되겠고, 고민 끝에 헬멧을 눌러 쓰고는 집 앞까지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피자 왔습니다!” 했습니다. 들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초인종을 눌러야 될 걸 제집 드나들던 습관대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겠지요. 듣는 사람이야 한바탕 크게 웃고 말 우스갯소리지만 부모님의 심정이야 오죽했겠어요. 아르바이트 허락도 안 받은 아이가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누볐을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겠지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을 알고 있는지, 그 목적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는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아이들일지라도 부모의 승인이 필요한 건 바로 이 때문이지요. 하물며 고가의 물건 구입이나 과소비 등 도가 지나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라면 숙고해 봐야 합니다. 가령,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새 휴대폰을 사겠다고 한다면 새 휴대폰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도록 해 주세요. 좋은 물건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인지, 다수가 지닌 물건이라고 해서 나 역시 그것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

각거리를 제시한다면 아이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타당하다면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안전한 일인지 ·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인권 침해나 노동 착취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거나 신상에 해가 될 수 있는 일,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술 · 담배를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금지시키고 그 이유를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최근 PC방에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의 사용 역시 부모와 상의한 후에 그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수입이라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화로써 자녀를 납득시키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이끈다면 자녀도 부모의 개입이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경제 활동을 위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경험보다 훨씬 값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바람직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최벨라뎃(상담교사)



#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야 해요!”

## 소화초등학교

수원교구 내 유일한 가톨릭계 초등교육기관인  
소화초등학교.

이성, 종교, 사랑의 예방교육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곳.  
'작은꽃'이라 불리는 이 학교 어린이들의 면면은  
'돈 보스코 마음의 교육'이 안겨 주는  
희망의 선물이다.

송정연 수녀 살레시오수녀회



### 세 번의 아침인사가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모든 것이 신기해 여기저기 눈길 두기 바쁜 1학년  
신입생들의 발걸음이 종종거리며 성당을 찾아오는  
아침 등교시간. '작은 꽃'(어린이들의 애칭)들의 아침  
은 3단계 인사를 거친다.

제일 먼저 운동장에서 반갑게 맞아 주는 도움이  
신 마리아와 눈인사를 나누고 중앙 현관 앞에서 한  
명 한 명의 얼굴빛을 살피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  
시는 교장 수녀님과과의 인사가 끝나면 1층 성당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진다. 아침부터 무슨 기도거  
리가 많은지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기도하는 어린  
이, 성수로 세수(?)를 하고 가는 어린이, 꾸벅 인사  
를 드리는 어린이. 기도 풍경은 참으로 다양하다. 등  
교하며 바치는 아침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  
덕분에 요즘은 성당 입구가 그야말로 100m 줄을 이  
룬다. 성당 입구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비상책으  
로 선심 쓰듯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애들아, 3월 한  
달 동안은 1학년 동생들을 위해서 성모님께 인사한  
것으로 대신하고 바로 교실로 올라가면 어떨까?” 했  
더니 “안 돼요. 예수님 하고 눈 마주쳐야 해요!”라며  
끝까지 줄을 지키다 인사를 드리고 난 후 뿌듯한 얼  
굴로 나선다. 교실에 조금 늦게 올라가더라도 하루  
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려는 작은 꽃 친구들의 모  
습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다시금 배우  
게 된다.

### 살레시오의 예방교육이 불러온 긍정적 변화들

수원교구의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인 소화초등  
학교는 파리와방선교회 소속인 심응영(테시  
데라도) 신부님에 의해 1934년에 '소화강습  
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신부님은 당  
시 일제 치하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문맹 퇴치와 교리교육을 위해  
무료로 수원성당(현재 북수동 성당)에서 어린이 교  
리반과 '돈보스코회'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애주애인(愛主愛人)의 정신으로 설립된 소화초등학교는



1



2



3



4

1 국악 오케스트라반의 연주 2 뜻깊은 현장교육  
3,4 학생과 수도자,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미사 전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를 본받아 국가와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을 목표를 삼아 작은 선교의 장이 되고 있다.

살레시오수녀회가 교육에 함께한 것은 1993년 수원교구의 위탁에 의해서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침체된 종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녀들은 전교생 미사와 교직원 월미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교리수업과 살레시오회의 빠질 수 없는 엑기스인 ‘예방교육’을 모든 교직원 연수에 도입하며 우리 특유의 입장지도를 강조하고 서로가 솔선수범이 되어 오늘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2002년 낙후된 북수동 교정을 떠나 지금의 원천동 교정으로 이전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의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잊혀져 가는 국악 교육에 중점을 둔 결과 국악 오케스트라반은 경기도의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어린이들의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네 명(교장, 담임, 보건, 종교)의 수녀들이

한마음이 되어 돈 보스코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어린이들 사이를 누비고 있다.

###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오라토리오 기적의 재현

특별전형으로 신자 어린이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자 어린이들의 비율이 다른 가톨릭 초등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렇기에 교리수업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따라 한다. 축일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전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전 축일이 없는데 어떡해요?”라고 묻는다. 또 다른 친구가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너 아직 성당 안 다녀?” 되묻는다. 익숙해져 가는 학교 분위기와 친구들의 모습 덕분에 어린이들이 먼저 부모님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졸라, 온가족이 세례를 받는 풍경도 종종 일어나는 학교 분위기를 접하며 전교의 수호성인인 소화





즐거운 운동회와 소풍(하회마을)

데레사 성녀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다.

“난 세상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칭찬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음을 난 알아요” 4학년 어린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호하게 자신의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토해 내던 아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수녀님은 날 좋아하나 봐요!”라고 히죽 웃는 모습을 보며 돈 보스코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변화되었던 오라토리오의 기적이 오늘 이곳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시기도 다르고 성장하는 모습들도 제각기 다르지만 차츰 차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줄기를 바로 세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에서 가장 좋은 거름은 하느님의 사랑임을 느낀다.

“수녀님, 태풍으로 힘든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 그동안 모은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다예요. 일주일 동안 엄마 일 도와드리고 난 후 또 가져올게요.”라며 묵직한 저금통을 성당 감실 앞에 놓는 친구. “어머나, 이렇게 많이 모았어? 힘들게 모았을 텐데 아깝지 않니?” “아

니요. 제가 조금씩 모은 동전으로 얼굴은 모르지만 내 또래의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날마다 모금함에 헌금은 못하지만 기도는 날마다 하고 있어요. 기도가 가장 큰 선물 아니까요.” 어린 동생들의 악기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모습,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가면 재빨리 다가와 “도와드릴까요?”라며 짐을 나누어 받는 모습에서 사회에 진정 필요한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보다 먼저 돈 보스코께서 찾아가 자리 잡고 도움이신 마리아님이 당신의 망토 아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소화초등학교! 흔한 말로 잘 차려진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을 하나 얹고 모두가 다복한 밥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거두고 있다. 오늘도 죄만 아니라면 신나게 마음껏 뛰놀라는 돈 보스코의 말씀처럼 건강하게 뛰며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FMA)로 불려 주심에 감사드린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작은 꽃들을 위해 기도하며 맞는 아침 햇살 속에 연약한 꽃송이가 튼실한 꽃송이로 성장하는 희망을 담아 본다. 🌈🌻



## 불안한 청년

전율스러운 현실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청년들.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복음말씀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에  
귀 기울이며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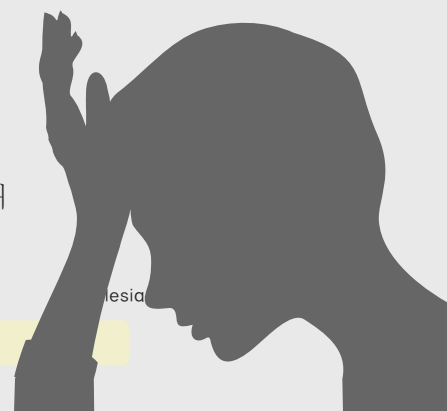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작가 민태원이 읊은 ‘청춘예찬’의 한 구절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 시대의 모든 청춘들도 가슴 설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상을 품고 자신의 이상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 여기며, 그 실현에 대한 믿음을 지녔는가?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는 청년들의 아우성 ‘안녕들 하십니까?’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 20대 사망의 절반이 고의적 자해(자살)라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통계가 우리의 현실이다. 무엇이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일까?

### 전율스러운 현실

새로운 꿈과 이상을 가슴에 품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청년들은 지

금 어떠한가? 대다수의 청년들은 사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용인받지 못하고 있고, 변두리에서 모든 불안 요소에 둘러싸여 생존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율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서구에 있는 7500만 청년 실업자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럽습니다. 수많은 악영향을 수반하는 광범위한 실업 상태를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부족이라는 공통의 뿌리에서 생겨난, 애석하게도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의존 상황을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살레시오회 총회원들의 알현에서 하신 말씀에서도 그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묻어난다.

이 시대 청년들의 전율스러운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은 사회 진입을 위해



서 혈투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견고한 장벽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이것에서 파생된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는 한줄세우기 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쟁교육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타인을 배려하거나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현상들이다.

## 사회 진입의 어려움

취업 준비생 김윤정(27, 가명) 씨의 경우 지난해 3월 졸업 후 토익, 토익 스피킹,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지어는 ‘한국 실용 글쓰기’와 같은 생소한 시험에도 응시했다. 딱히 특정 회사나 직종에 응시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청년들은 스펙을 쌓는 일이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믿으며, 심혈을 기울여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덕분에 자격증은 쌓여 가지만 이런 스펙이 딱히 취업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도 삶의 문화적 질을 높여 주지도 못하고 단지 종이조각가리에 머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대학 졸업자 10명 중 4명이 사회 진입이 잘 되지 않는 여파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 부른다. 구직의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일할 의지도 독립할 의지도 없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기생 형태의 청년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한 연구를 통해 실업 상태로 취업을 포기한 15~34세 청년 니트족이 2003년 75만 명에서 2010년 99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런 의존적 상황의 증가는 본인의 결혼과 가정 및 사회생활, 자녀양육, 부모세대의 노후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청년의 원활하지 못한 사회 진입과 의존적 상황은 학생 신분의 연장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풍속도를 그리고 있다. 서울대와 교육부가 작성한 ‘2009~2013년 졸업생 등록 학기 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소재 국립대 13개교 23만 4천여 졸업자 중 9학기 등록 후 졸업한 학생은 7만 9천여 명(33.9%), 10학기 이상 등록 후 졸업한 학생은 2만 7천여 명(11.8%)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규정된 학기를 모두 마치고도 졸업을 유예하고 스스로 ‘5학년’이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제 대학 졸업자의 30%에 육박하는 비율이 취업보다 대학원 진학을 택해 학생 신분 연장을 꾀하고 있다.

## 사회성, 책임감?

지난 3월 초 인기 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출연자가 돌연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 짹’이라는 일종의 연애 서바이벌 게임으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연애프로그램이었기에 사람들의 충격은 더 컸다. 이 프로그램은 관찰예능이라는 새로운 포맷인데 일반인들을 출연시켜 6박 7일 동안 폐쇄된 곳에 ‘모셔 두고’ 그들 사이의 이성 상대를 선택하고 짹을 맺어가는 과정을 추적하며 모든 것을 보여 준다. 희생된 출연자는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상황에 덧붙여, 짹을 차지하는 경쟁에서 밀리는 것까지 프로그램의 소재로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사회와 대중은 어릴 적부터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아직도 서바이벌의 상황을 강요하





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웃과 동료에 대한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계속 날을 세워야 하며, 모든 이들을 ‘자신의 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서바이벌의 상황이 현실에도 가득하다.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도 많다. 높아진 학력만큼이나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청년 전체가 크게 올라갔다. 이른바 대기업 직원 수준에 맞춰진 안정적인 기대치에 다가가는 길은, 기존 질서의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순응력에 있다고 믿는다. 지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역사적 책무감을 갖고 시대 참여에 적극적인 패기를 발휘했던 앞 세대와는 사뭇 다른 점이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의 선택보다 부모에게 의존해 온 청년은 어려움이 닥칠 경우 자꾸만 피하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행동 양상은 심리학적 ‘회피 대처’로 보인다.”는 권정혜 교수(고려대, 심리학과)의 진단도 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직면이나 감수보다는 회피를, 몰입보다는 피상적 대응을, 우직함이나 끈기보다는 임기응변의 즉흥적 대응에 더 길들여지게 하는 교육·사회적 여건 속에서 자랐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핵심으로 접근하질 못하고 주변인처럼 겉도는 느낌의 본질적인 소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 두려워하지 마라

청년 안에 존재하는 불안은 하나의 씨앗이다. 즉, 인생을 성장시키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극복할 힘과 기회를 제공한다.

“삶에 대한 두려움, 도전 앞에서의 두려움, 하느님 앞에서의 두려움 등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느껴야 하지만 가질 필요는 없고, ‘내


가 왜 두려워하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청년 불안을 두고 하신 권고 말씀이다.

누구든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두려움은 마치 미지의 늪과 같아서 청년을 불안의 질곡으로 끌어들이며, 헤어 나지 못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조명할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만나도록 이끌기도 한다.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에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황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권력, 돈, 명예, 등... 혹은 진리, 아름다움, 선행의 추구 등... 청년들은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어떤 보물 위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가?”를 묻는 이

관심이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이라는 썩어 없어질 보물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참된 진리와 선행에 대한 의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분명 청년들은 무엇이 더 큰 보물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마태오 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청년’은 율법에 비취 반듯한 자신의 삶을 내보이며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본질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하는 두려움의 상황으로 인도했다.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보물 위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가?” 부자청년의 이야기를 거울삼으며,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불안과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썩어 없어질 보물에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안을 이겨낼 참된 보물, 즉 진리와 선행에 대한 의지 그리고 아름다움에 마음을 둘 것인가! 



### 여는 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는 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든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등한시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씀에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친교를 나누고 일치하는 기쁨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기행 /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대로

### 연중기획: 돈 보스코의 영성-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과 영혼의 구원

‘돈 보스코의 영성’ 중, 돈 보스코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일치는 훌륭한 어머니의 믿음 덕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 보스코가 가르쳐 준 기도를 잘 하기 위한 조건’은 그동안 습관이나 의무로 기도하곤 했던 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을순 / 인천시 남동구 포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며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특히 ‘기도를 잘하기 위한 조건’은 제게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선

### SYD 행사에 다녀와서

열심히 가족지를 애독하고 있습니다. 저녁식사 후, 가족과 함께 가족지를 읽으면서 단어를 맞춰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글자를 지워 나가는데 소외되신 아빠의 살짝 빠치신 얼굴을 보며 모녀가 같이 웃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제3회 한국 살레시오 청년대회의 여운이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네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좋은 음악,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했던 2박 3일이었습니다. 청년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시간을 내어 기꺼이 참여하고 싶네요.^^

정예원 / 경기도 용인시 시흥구 하중동

### 참 좋았던 돈 보스코 성지 순례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에 봉사를 다니면서 돈 보스코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지를 통해 토리노, 발도코란 지역이 성인께서 활동하시던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돈 보스코 성지 순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일생에 꼭 가 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사랑으로 이끄신 요한 보스코 성인께 감사드립니다.

선율

### 부모세대-자녀세대: 청소도 못하는 아이

‘세대 간의 대화’를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도 아직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네요. 늘 기다려 줌이 부족한 마음을 한 템포 다듬어 보지요. ‘생명을 주는 가족’도 열독하고 있어요. 손녀를 대할 때나 며느리에게 보여 줄 겁니다.

권성남 / 대전시 서구 도마2동

엄마가 이번 호 ‘청소도 못하는 아이’를 읽어 주셨다. “네 행위로 인해 엄마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행복하다.”는 내용을 새겨 들었다. 잊지 말아야겠다.

김영진 /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 살레시오 성인: 아틸리오 조르다니

아틸리오 조르다니 성인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선교지의 사도직까지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떻게 성인의 삶을 본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지영연 / 대전시 서구 청사로

### 돈 보스코의 마음으로 교육합시다: ‘손톱 물어뜯는 아이’

수녀님이 은희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과 미움·상처를 치유시켜 관심사를 이끌어 내고, 은희가 과거의 어두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협력자로서 돈 보스코의 영성을 배우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최영옥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손톱을 물어뜯던 은희의 이야기’를 읽고 주변 청소년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직 미숙한 영혼들이 사랑에 굶주렸기에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중기획: 돈 보스코의 영성’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나의 중심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송연아 /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 처음 받아 본「살레시오가족지」

많은 정성이 담긴 가족지를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 그 충실한 내용에 흠뻑 빠져서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낱알이 보게 됩니다. 돈 보스코의 영성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그 영성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귀은 / 포항시 남구 지곡로

# QUIZ

가족지를 꼼꼼히 읽고,  
퀴즈에 참여하시어 선물도 받아 가세요.

## 응모 방법

가족지 기사 안에서 제시된 **문제의 답을 찾아**

**아래쪽 표에서 지워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글자를 조합해 하나의 단어를 만드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정답을 부착된 독자엽서나

이메일(dbm@hanmail.net)을 통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과 주소도 잊지 말고 보내 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 드리며

당첨 결과는 다음 호 가족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마감** 5월 20일

## 문제

- 제27차 총회 기간 중 양승국 신부는 중동관구 살레시안들의 현실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중동관구의 이야기를 들려준 신부의 이름입니다. '무니르 엘 ○○ 신부' (여는 글 참조).
- 이성, 종교, 사랑의 예방교육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곳. '○○○' 이라 불리는 소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면면은 '돈 보스코의 마음의 교육' 이 안겨 주는 희망의 선물이다.
- 예고 대축일에 또 다른 천사가 살레시오회의 전면에 등장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총장 신부님.
- 1863년 12월 31일, 새로운 해를 위해 돈 보스코가 오라토리오의 아이들에게 생활지표(○○○○)를 주면서 "우리 집의 가훈은 내 방에 붙어 있는 Da mihi animas, cetera tolle이다" 라고 말했다.

주	모	작	생	마	스
라	렌	탄	이	님	아
리	꽃	트	성	은	나

**125호 당첨자 김영진, 최영옥, 장을순**

지난호 정답 : 요셉성월

작은 정성이 큰 사랑을 이룹니다.

많은 분이 가족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2. 1 ~ 2014. 3. 31)

강민준	10,000	강영식	20,000	강인진	10,000
강찬희	20,000	강혁준	10,000	공영환	3,000
곽성도	10,000	구본옥	40,000	권빛나	20,000
권택용	10,000	기세경	10,000	김경호	20,000
김경희	20,000	김교순	10,000	김도형	5,000
김동욱	5,000	김동호	10,000	김모식	5,000
김미영	20,000	김방진	100,000	김복순	10,000
김선옥	5,000	김선희	20,000	김송지	20,000
김 숙	40,000	김숙자	10,000	김억래	80,000
김연정	40,000	김영순	5,000	김영자	5,000
김영환	50,000	김옥남	12,000	김옥희	20,000
김윤이	5,000	김점자	10,000	김정수	20,000
김정운	10,000	김정원	10,000	김정혜	10,000
김찬용	10,000	김춘자	15,000	김태환	20,000
김한기	20,000	김현숙	200,000	김혜진	10,000
김호순	100,000	나경환	100,000	나용술	20,000
나지영	10,000	나현숙	30,000	나혜진	20,000
노숙희	20,000	노일철	20,000	노재창	50,000
류숙현	10,000	류재언	50,000	명옥선	50,000
문성필	120,000	문순자	50,000	문영숙	60,000
박경신	30,000	박다영	40,000	박민수	30,000
박상진	60,000	박수경	30,000	박숙연	20,000
박승도	30,000	박승례	20,000	박영배	20,000
박옥연	30,000	박인순	20,000	박정희	20,000
박준용	40,000	박중실	100,000	박지원	5,000
박현혜	20,000	박형근	40,000	박 흥	10,000
박홍래	200,000	방극진	10,000	방준혁	10,000
배은희	50,000	백동숙	10,000	부행장(돈보스코회)	60,000
서숙자	5,000	서순현	20,000	서정희	10,000
서진옥	20,000	손화경	20,000	송우영	210,000
신선자	5,000	안계윤	20,000	안영옥	10,000
안순옥	90,000	안양미	10,000	양대동	20,000
양은영	10,000	양지원	15,000	양차현	10,000
양필수	10,000	염정옥	20,000	오성자	10,000
요한보스코	20,000	위계평	50,000	유승환	5,000
유우주	10,000	윤경숙	120,000	윤옥자	6,000
유준연	10,000	윤지연	100,000	이강선	60,000
이금순	10,000	이민호	5,000	이복순	20,000
이봉례	5,000	이상정	10,000	이선일	5,000
이세복	100,000	이순임	10,000	이명란	60,000
이영자	210,000	이옥자	10,000	이완수	10,000
이유진	10,000	이은경	20,000	이은재	10,000
이은주	30,000	이정숙	40,000	이한주	10,000
이혜원	200,000	장쌍례	30,000	장영자	20,000
장은주	9,000	장혜원	20,000	전은미	10,000
정은희	10,000	정정경	10,000	정현숙	20,000
정희진	30,000	조민지	10,000	조병남	10,000
채종숙	10,000	최경섭	20,000	최규경	10,000
최미경	5,000	최영만	10,000	최영희	10,000
최옥색	30,000	최준식	10,000	최희선	30,000
한광희	30,000	한미경	20,000	홍경화	20,000
홍승완	10,000	황영희	40,000	익명(29명)	228,000

돈 보스코의 정신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58-01-0018-441, 예금주 살레시오가족)



# ‘리더’라면 외부통제를 삼가자

부모-자녀 관계, 경영자·관리자-직원 관계에서  
통제하고 강요하고 힘을 사용하는 외부통제 심리학이  
인간관계에서 낳은 결과는 무엇이기에  
이를 피해야만 하는 걸까?

박은미 품 심리상담센터 원장



**가정이나** 직장 그 밖의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상황, 고립을 자  
초하는 상황이 있다면, 아마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  
나와 관련될 것입니다.

-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가 거부하는 것을 하게 하려 든다.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어떤 때는 우회적으로 당신은 상대에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려 한다.
- 당신과 상대가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려 한다.
- 당신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하도록 스스로에게 밀어붙인다.

(윌리엄 글라써, 『행복의 심리』, 김인자 · 우애령 옮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1998, 14쪽)

위의 네 상황에서처럼 흔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훈육’에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행위를 하면 보상을 주고,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 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담이론에서는 이를 ‘외부통제 심리학’이라 부릅니다. 자극-반응 이론, 상벌주의 (당근과 채찍 원리) 등은 외부통제 심리학의 변형입니다.

힘을 행사하려는 사람도 힘의 행사를 당하는 사람도, 이 외부통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파악하려 들지도 않고, 그 타당성에 대해 묻지도 않습니다. 인간 사회란 언제나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냐고 생각될 정도로 외부통제는 인간의 내면 심리와 태도에 그리고 사회의 운영체계에 속속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통제의 전제는 “잘 못하는 사람

들을 처벌하라, 그러면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잘 따르면 상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입니다.

**보상이나 벌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고, 이 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권위<sup>Authority</sup>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지식·경험·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통제하고 명령하며 어길 때에는 벌을 주는 등 보상과 벌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해, “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 “엄하기는 하지만 공정하다”, “엄하게 훈육한 뒤 사랑으로 다독여 준다”며 자신이 행사하는 힘과 권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부모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외부통제 심리학은 특히 부모, 교사와 지도자 등 한 집단에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더 자주 활용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힘을 얻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통제당하는 상황이 불행스럽게 느껴지면서도 다른 방도를 택할 수도 없으며, 저항하면 사태가 더 나쁘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부통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 통제력을 지니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외부통제 행동 때문에 관계를 훼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통제력을 얻기는커녕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자녀를 외부통제해 온 부모는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더 이상 외부통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힘을 남용하면 할수록 관계도 나빠지므로,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통제하고 강요하고 힘을 사용하는 외부통제 심리학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어느 쪽도 바라지 않았던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경영자나 관리자가 외부통제 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할 때 역시 직원들에게 적대적 감정이나 분노 또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업무의 진행까지 방해하고 맙니다.

**우리의 행동은**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기계’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거나 줄 수 있는 것은 정보뿐입니다. 정보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거나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비참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명하게’ 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힘으로 표현되는 외부통제는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관계는 균열되고 파괴됩니다. 진정한 리더라면 외부통제부터 삼가야 합니다.



품 심리상담센터: 02) 845-2080 empark932@hanmail.net

※ 이 글의 내용은 「살레시오가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하느님께 사랑받는 우리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들로부터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배우며 이들을 통해 매일 매 순간 정화되도록 초대받은  
복된 삶……. 그러기에 언제나 지나 이들이 나의 스승이요  
고맙고 고마운 나의 착한 벗들이다.”

최경숙 수녀 살레시오수녀회

**몹시** 불편한 심기를 부여안고 거의 뜬눈으로 잠을 설쳤던 한밤의 여파가 컸다. 두어 시간가량 어찌어찌 눈을 좀 붙이긴 했지만 정작으로 일어나야 할 시간엔 비몽사몽인데다가 낮 동안도 며칠씩 피로감이 풀리질 않았다. 불편심의 원인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달래 보고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 곳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생활 리듬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공동체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이 되었다. 습관처럼 이리저리 들춰 보던 책들, 정리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무조건 다 덮어 두고 나의 모든 행동을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었다. 우선 빨리 씻고 내일 복음만을 눈으로 훑어본 다음 아홉 시도 채 되지 않은 때에 전등을 꺼 버렸다. 어둠 속 말뚱말뚱한 두 눈! 억지춘향 격으로 잠이 오거나 말거나 묵주알을 굴리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튿날**, 벌떡 일어나 불을 밝히고 보니 분침이 벌써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니, 알람소리도 못 듣고 자다니! 기도에 늦어 버렸네…….’ 후다닥 성호를 긋고 눈곱 세수만 한 뒤 옷을 챙겨 입고 5분여 만에 방문을 벌럭 열었다. 그런데 공기가 이상했다. 너무 고요하지 않은가……. 모든 방 앞에 신발들이 가지런

히 놓여 있고 주방 쪽만 불빛이 환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들여다보니 4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저녁 내내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던 수녀님. ‘모두의 밥을 지어 주시기 위해 성치도 않은 몸에 저렇게 날마다 거의 두 시간을 먼저 깨어 계시구나!’ 첫 새벽에 목격한 거룩한 불빛 하나에 고개가 숙여졌다. 조심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방 안을 둘러보니 가관이었다. 뒤집힌 실내화 한 짝, 의자에 한 팔만 걸쳐져 있는 스웨터, 건조대 위의 수건은 바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 양말을 꺼낸 서랍은 반쯤 열려 있고 창문에서 흘러들어온 바람 때문에 꽃병까지 쓰러져 있었다. ‘이래 놓고 기도하러 가려 하다니……’ 공동체가 모이라면 아직도 한 시간 반이나 남았다. 차분히 세수부터 다시 했다. 쏟아진 꽃병의 물을 닦으려고 걸레를 가지러 일어서니 방문 틈새에 끼어 있는 편지 한 통이 보였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요즘, 감기에 걸리셨던데… 하지만 저의 엄청난 사랑이 수녀님께 전해져서 이제 감기 따위는 수녀님 곁에 있지 못할 거예요. 요즘 급하게 기도문 외우느라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힘내야겠죠? 저 이제 곧 세례 받아요. 저 세례 받는 날, 꼭 오실 거죠? 저 응원해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이쁜 딸 지선 드림



한 아이가 이른 아침부터 이토록 내게 힘을 실어 주었다. 미사를 드리고 온 아침 식탁에서 수녀님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참석한 피정 얘기를 나눠 주었다. 세례를 받고 싶은 이유를 물으니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말했다. 자신의 어떤 단점을 고치고 싶은 가라는 질문에 거의가 '욕!' 하는 성질을 뜯어고치고 싶다는 답들을 했다. 아득한 어린 시절부터 깊이 침잠해 있는 분노와 미움의 응어리들. 부모의 이혼으로 품비박산된 가족, 심지어 자살한 엄마에 대한 엄청난 충격의 기억을 안고 지금까지 용하게 견디어 온 뼈아픈 어린 영혼……. 저녁이 되어 아우 수녀님이 또 다른 아이의 편지 하나를 전해 주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 정이에요. 이제 퇴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항상 저에게 먼저 다가와 웃어 주시는 수녀님이 정말 그리울 거예요. 제가 다음에 놀러 온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환한 미소 보여 주실 거죠? 수녀님은 저의 엄마 같은 분이신데…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틀린 것이 신기해요. 근데, 계속 못난 짓 한 거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믿어 주세요. 치과도 같이 가 주시고 항상 기다려주시곤 했는데, 남친 얘기가 바깥 얘기만 하고 남을 욕하며 훑이나 봐서 죄송했어요. 수녀님, 저는 사고만 치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저 자신도 사랑하지 못했구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배워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아요. 주일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드리기는 좋은 경험도 해보고 자존감도 생기고… 정말 최고예요! 항상 상처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동안 불편했던 심기에 아이들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아서인지 코끝이 찡해 왔다. '영망진창인 나더러 엄마 같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뭔가가 내 심에서 씻겨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여느 때처럼 그 아이의 편지를 넣어두려다가 아예 편지서랍째 빼서

방바닥에 놓고 앉아 그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편지들을 한 장씩 펴보았다.



수녀님이 도와달라고 저를 부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어요! 항상 생각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어요. 저번 달에도 오빠가 면회 오지 못해서 풀이 죽어 있었는데 수녀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옷을 챙겨 주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울곤 해요. 수녀님은 제게 엄마 같은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잡힌 데에는 수녀님 덕분이 커요. 수녀님이 보이면 바로 달려가 안기고 싶고 그래요.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수녀님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언제고 착하고 예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수녀님이 저의 엄마였으면… 아! 얼마나 좋을까? ㅎㅎㅎ 이번에 검정고시 모의고사 보았는데 평균이 73.5점밖에 안 나왔어요. 다음 시험 때는 꼭 85점 이상 맞아서 수녀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좋은 점수로 꼭 대학에도 들어갈 거예요. 저도 씩씩하게 지낼 테니 수녀님도 몸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 하셔야 해요.

현서 올림

제가 울고 있을 때 저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저의 고민을 들어주셨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그때 수녀님의 말씀이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를 매일 듣고 싶어요. 수녀님, 저도 다른 애들처럼 제가 수녀님 도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자신 있어요. 전에 나연 언니와 같이 수녀님 도와드렸잖아요? 고작 옆에서 풀을 붙이고 테두리 색칠밖에 안 했지만 그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일을 끝내고 뿌듯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지 드림



요즘 계속 우울했었는데 오늘 제 장을 열어 보니 수녀님의 편지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하고 제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녀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수녀님도 저 좋아하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해요.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알겠죠?

수녀님을 사랑하는 정민 올림 ♥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카 6,8)

**그렇다!**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이들로부터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배우며 이들을 통해 매일 매 순간 정화되도록 초대받은 복된 내 수도 삶이다. 그러기에 언제까지나 이들이 나의 스승이요 고맙고 고마운 나의 착한 벗들이다. 위대한 스승 돈 보스코께서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지붕 아래 수녀님들과 나는 아이들의 깊은 상처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 아이들의 움츠린 어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껴안는다. 이처럼 도처에 많은 표지들을 보여 주시는 그분의 준엄한 시선. 사람아, 주께서 네게 무엇을 원하시더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사랑하는 수녀님들의 살아 있는 기도와 숨은 희생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총애로 으스러진 그들의 뼈가 튼튼해지고 고름이 살로 변해 간다. 반년을 함께 부리며 지내던 아이들이 우리 집 문턱을 나서면서 말한다.

“수녀님! 이제 제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저더러 또다시 손가락질할까 두려워요. 그래도 여기서 지냈던 그동안의 시간들만큼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못사람들에게 또다시 무시당하면 어쩌나 싶어 조바심이 난다. 더욱이 아빠도 엄마도 없는 썰렁한 집에 바람막이도 비벼델 언덕조차 없이 떠나야만 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얼마나 사랑에 주렸으면 별 볼일 없는 나를 엄마라고까지 불러 줄까? 그러니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그분께서 아이들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모든 악과 유혹으로부터 꼭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지. 나를 사랑해 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 The Salesian Bulletin of Korea

설립자 성 요한 보스코(1815~1888)

발행처 살레시오회 한국관구

발행인 양승국

발행일 2014년 5월 1일(격월간)

발행부수 11,100부

편집처 돈보스코미디어

편집인 서정관

편 집 신태홍, 신민수, 정다와

디자인 이흥

편집자문위원

백광현, 전미숙, 황수연, 최인호

주 소 우)150-8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전 화 (02)828-3535

FAX (02)828-3538

E-mail dbm@hanmail.net

홈페이지 ibosco.net

등록일자 1997. 8. 13

등록번호 서울 마02669

## 살레시오 가족이란

살레시오회, 살레시오수녀회,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돈보스코재속회 등 돈 보스코의 청소년 교육 사명을 수행하는 수도·봉헌생활 단체들과 살레시오협력자회, 남·여 동문회 등 평신도 단체 그리고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는 않았어도 청소년을 사랑하며 돈 보스코와 같은 교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돈 보스코가 시작한 일을 돕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 살레시오가족지는

- ▶ 살레시오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일치의 끈으로, 우리 시대의 종교·문화·사회적인 주제들을 돈 보스코의 교육적인 마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주어지는 돈 보스코의 선물로 세계 56개 나라에서 29개 언어로 연간 1000만 부 이상 발행합니다.
- ▶ 돈 보스코의 정신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758-01-0018-441

예금주 살레시오가족

# 돈 보스코를 닮은 살레시오 가족

관구장 소임을 마치며...



남상현 신부 살레시오회

**사랑하는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저는 수도회의 로마 본부에서 열린 제27차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회와 함께 임기를 마치시는 파스칼 차베스 총장님의 말씀에 순명하여,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구장 소임을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돌아보니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제게 보여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소중하게도 우리는** 지금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2015년)을 기념하는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살레시오 가족 모두가 젊은이의 아버지요 스승이고 친구인 돈 보스코를 닮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살레시오회 모든 형제들은 수도회 창립 150주년(2009년)을 맞아 자신의 서원을 새롭게 발하였고, 돈 보스코의 첫 번째 후계자인 돈 루아 선종 100주년(2010년)에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돈 보스코가 되겠다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을 찾아가는 보스코 성인의 유해 순례 덕으로 우리는 2010년 가을, 20일 동안 돈 보스코와 함께 지내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직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총장님은 젊은이들과 살레시오 가족들 가운데 현존하며 돈 보스코의 마음을 잘 보여 주셨습니다.

은총으로 주어진 지난 시간들, 우리 모두는 창립 자요 아버지인 보스코 성인을 아주 가까이 피부로 느끼며 자연스레 그분을 닮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살레시오회 한국관구는 구체적으로 공동체들의 사목 조정, 살레시오 가족들의 유대와 역량 강화, 그리고 살레시오청년운동(SYM)의 활성화를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살레시오 가족 구성원 모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 돈 보스코처럼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살레시오 가족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돈 보스코를 닮는 일상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관구장 소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마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맞닥뜨려야 했던 수도회 안팎의 결코 쉽지 않았던 말 못할 상황들과, 관계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에 저는 제 인간적인 나약함을 들고 기도하며 홀로 돈 보스코와 하느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 탓에 형제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살레시오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대하지 못한 것도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제 마음 깊이 품고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관구장 소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돈 보스코를 닮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기쁘고 충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가 먼저 정직한 시민이요 착한 신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젊은이들과 이웃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기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돈 보스코의 후계자입니다. 하느님께서 돈 보스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이제 관구장 소임을 시작하는 양승국 신부와 함께 나누며,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젊은 그대를 초대합니다.

## 살레시오 가족 단체의 성소 안내

### 살레시오회 [www.ibosco.net](http://www.ibosco.net)

대상 고등학교 3학년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남성  
전국 성소 담당 신부 010-6310-1844 [vocation@sdb.kr](mailto:vocation@sdb.kr)  
문의 서울 · 경기 · 강원 · 제주 02) 831-3068  
광주 · 전라 062) 512-0332 대전 · 충청 042) 584-0654  
대구 · 경북 02) 831-3068 부산 · 경남 042) 584-0654

### 살레시오수녀회 [www.salesiansisters.or.kr](http://www.salesiansisters.or.kr)

대상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35세 이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미혼 여성  
문의 경인 010-3560-4658, 010-4893-0524  
호남 010-9353-6052 영남 010-5354-5796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www.icaritas.or.kr](http://www.icaritas.or.kr)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성  
문의 서울 02)581-9988, 010-5401-9742, [k-neri@hanmail.net](mailto:k-neri@hanmail.net)  
광주 062)674-2954, 010-5036-2954, [caritas-scg@hanmail.net](mailto:caritas-scg@hanmail.net)  
수원 031)328-8270, 010-2568-5231, [caritas0524@hanmail.net](mailto:caritas0524@hanmail.net)

### 돈보스코여자재속회 [www.vdb.kr](http://www.vdb.kr)

대상 견진 받은 지 3년 이상 된 40세 미만의 미혼으로 세속에 살면서  
축성생활을 원하는 여성.  
문의 서울 010-3797-3115, [isvdb@hanmail.net](mailto:isvdb@hanmail.net)  
광주 010-7650-3830

